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의 응전 IV

편집실

제1장 세계화: 무엇을 뜻하는가

제2장 부지 나라와 가난한 나라

제3장 세계무역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제4장 세계경제의 주인

제5장 세계투자는 어떻게 이뤄지나

제6장 국제 부채, IMF와 세계은행

제7장 돈이 세계를 돌이게 하고...

국제 금융 이야기

제8장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

제9장 세계화에 대한 대응

초 국적기업은 세계경제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초국적기업이 갖고 있는 힘은 얼마나 되고 세계경제를 어떻게 휘젓고 다니는가? 이 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룬다.

초국적기업

초국적기업은 세계경제에서 중심 역할

을 하고 있다. 우리는 초국적기업이 세계경제의 "주인"이라고 말한다. 지난 몇 십년 동안 초국적기업은 세계 경제에서 막강해졌다. 세계 곳곳의 기업들이 초국적기업의 손아귀로 집중되어 왔다. 초국적기업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방식은 점점 복잡하고 유연해지고 있다.

초국적기업에 대한 몇가지 사실

- 지금 세계에는 40여만개의 자회사를 가진 4만개의 초국적기업이 있다.
- 초국적기업은 세계 경제에서 주요한 사용자이자 구매자이자 생산자이다.
- 초국적기업은 세계 무역의 2/3를 떠맡고 있으며, 그 절반이 초국적기업 자회사들간에 이뤄진다.
- 초국적기업의 90% 이상이 선진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1% 남짓이 중동부 유럽에, 8% 정도가 기타 개도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어느 초국적기업이 본사를 A 나라에 두고 있다면, 그 초국적기업은 A 나라에 속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미국의 초국적기업은 다국에 본사를 둘 것이다.
- 개발도상국에 있는 상위 50개 초국적기업 가운데 32개가 아시아에 자리잡고 있다.
- 한국의 현대, 삼성, LG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국적기업이다.
- 초국적기업은 세계 곳곳에서 7천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 초국적기업은 세계의 제조업 생산물 가운데 25%를 생산한다.
- 1992년의 경우 엑손, 제너럴모터스, 포드와 같은 초국적기업의 판매고는 짐바브웨와 필리핀같은 나라들에서 팔린 모든 상품의 가치보다 더 컸다.

다국적기업인가 초국적기업인가

국제적인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어느 정도 변화했는가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몇몇 사람은 초국적기업이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에서 진정한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다국적기업이란 세계 곳곳에 자회사를 갖고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국제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초국적기업과 비슷하지만, 본사가 있는 특정한 나라의 국민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초국적기업과 다르다. 국민국가는 다국적기업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초국적기업은 국민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활동하며, 국민국가가 초국적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특정 정책을 강제할 수 없다. 초국적기업은

“국적없는 기업”으로 불리며,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대단히 분산되어 있지만, 세계경제에 대한 힘과 통제력은 대단히 집중되어 있다.

초국적기업의 성장

초국적기업의 역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초국적기업은 2차대전 이후에 급격히 성장했다. 당시 대부분의 초국적기업은 미국기업이었다. 포드, ITT, 굿이어 같은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은 영국과 서유럽으로 뻗어갔다. 1960년대이래 유럽과 일본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유럽과 일본에서 초국적기업이 성장했다. 유럽과 일본의 초국적기업은 미국의 초국적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초국적기업 사례: 유니레버

유니레버는 세계 최대의 음식가공 및 가정용구 회사이다. 유니레버는 70개가 넘는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80여개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다. 유니레버가 만든 생선포는 전세계 가정의 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1993년의 경우, 유니레버는 전세계에서 294,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했다. 이것은 1990년의 고용인원인 304,000명과 비교된다. 유니레버는 국제적인 생선포를 지역적인 수요에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액은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세척액과 향과 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특색에 맞는 생산이 중요하다.

유니레버는 얼마나 많은 물건을 통해 우리들의 생활에 들어와 있을까?

- 아이스크림: 메그넘, 코르네로
- 차: 일론, 부룩크 본은
- 식품: 로이코, 옥스, 킵톤
- 비누: 록수, 도브, 실드
- 향수: 엘리자베스 아덴, 불루 그래스, 레드 도어, 엘빈 클라인 화장품
- 섬유: 선실크, 오르가닉스
- 피부모션: 바세린, 톤, 제어, 콘드
- 치약: 콜로즈업, 연타엔드

이 모든 상품들이 유니레버가 소유한 회사들에서 만들어진다. 유니레버는 브라질, 칠레,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등에 자회사를 갖고 있다. 1995년의 경우, 유니레버의 일년 매출액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전체 생산의 절반에 육박했다.

개발도상국으로 향하는 초국적기업

초국적기업은 1950년대부터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초국적기업의 활동은 농업과 석유 부문에 집중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초국적기업은 개발도상국에 제조업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다. 임금이 싸고 신흥시장으로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고관세 정책으로 자국경제를 강력하게 보호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으로의 초

국적기업의 상품수출이 어려워졌음을 뜻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직접 공장을 지음으로써 더 이상 수출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경제개발이 필요했던 개발도상국들이 시, 초국적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출 자유지역(EPZ)을 만들고 초국적기업의 공장 설립을 지원했다.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성장한 초국적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국의 삼성, 현대, 대우가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초국적기업이다.

생산을 재조직하는 초국적기업

1970년대이래, 초국적기업이 생산을 조직하는 방식은 엄청나게 변했다. 생산 방식의 변화는 컴퓨터 기술의 응용으로 더 빨라졌으며, 이러한 과학기술의 변화는 세계적인 규모에서 보다 유연한 생산 방식을 만들어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초국적기업은 세계적 차원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통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각국의 경제를 통합하고 세계경제의 지구화(globalization)에 기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초국적기업은 세계 생산의 핵으로 불린다.

오늘날 상품의 국적을 아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한 상품의 구성을 보면 다양한 나라들에서 만들어진 부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산업인데, 1960년대에 포드 코르티나는 영국차였다. 포드 코르티나가 미국 기업의 차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디자인되고 조립되었으며, 모든 부품 역시 영국에서 생산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포드 코르티나의 차체와 부속품은 14개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포드 코르티나는 영국차가 아니라 세계의 차가 된 것이다.

초국적기업은 어떻게 확장하는가

1980년대에 초국적기업은 급속한 성

장을 겪는다. 이것은 초국적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기업인수를 활발하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5년과 1989년 사이에 각국들간의 인수합병 거래는 3천억 달러에서 1조달러로 급성장했다.

1980년대 이후 초국적기업은 새로운 형태의 국제투자과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1. 하청 혹은 외주
2. 주식매입
3. 인수합병
4. 전략적 연합
5. 프랜차이즈

1. 하청 혹은 외주

초국적기업은 하청과 외주를 점점 늘려나간다. 이것은 초국적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돈을 주고 자기 영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한다.

2. 주식매입

초국적기업은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입한다.

3. 인수합병

초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의 기업과 합병한다. 때로는 수평적 통합(같은 사업분야에서 경쟁하던 두 개의 기업이 서로 합치는 것), 때로는 수직적 통합(공급자 역할을 하던 기업이 고객 역할을 하던 기업과 합치는 것)이 이뤄지기도 한다.

4. 전략적 연합

초국적기업은 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여러 나라의 기업들과 전략적 합병을 추진하기도 한다. 전략적 합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늘어왔다. 첨단산업에서의 전략적 합병은 1980년에 145건에서 1993년에 449건으로 늘었다.

5. 프랜차이징

초국적기업은 프랜차이징을 하기도 한다. 이것은 개인과 기업들이 초국적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이름을 사서 자기 나라나 지역에서 그것을 본뜬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피자헛(Pizza Hut)은 프랜차이징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초국적기업이 가진 힘은 무엇인가?

세계경제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힘은 다음과 같다.

1. 초국적기업은 세계적으로 생산을 계획한다.
 2. 초국적기업은 지구 곳곳으로 생산을 이전한다.
 3. 초국적기업은 국민정부를 무시한다.
 4. 초국적기업은 자체의 내부시장을 갖고 있다.
 5. 초국적기업은 환경을 해칠 수 있다.
 6. 초국적기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1. 초국적기업은 세계적으로 생산을 계획한다

초국적기업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것은 초국적기업이 생산망을 통해 기업을 소유하고 통제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하나의 초국적 기업은 원료를 추출하는 기업은 물론 원료를 가공하는 기업, 최종생산물을 만드는 기업까지도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포장과 마케팅을 하는 기업까지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어발식' 기업 구조는 양질의 기획과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내도록 만든다. 초국적 기업의 크기와 자본은 더 많은 기업을 매입토록 하고, 원료의 원천을 독점하고 시장을 통제한다. 한 두 개의 큰 회사가 특정 시장을 지배한다. 예를 들어 세계 커피 시장은 두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

2. 초국적기업은 지구 곳곳으로 생산을 이전한다

초국적기업은 기술, 경영기법, 작업조직을 지구 곳곳으로 전파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생산공정을 분할하여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해고하고서 임금이 싼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 대체로 초국적기업은 노동집약적인 공정을 중국, 멕시코, 짐바브웨 같은 임금이 싼 나라로 옮긴다. 생산시설을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장수준이 최악인 나라로 옮기는 것을 "사회적 덤핑"이라고 말한다. 초국적기업의 자회사들은 국제적으로 모회사의 이미지와 브랜드 이름을 갖고 활동

하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로 초국적기업과는 상관없는 독립기업으로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3. 초국적기업은 국민정부를 무시한다

초국적기업은 국민정부의 힘을 약화시킨다. 초국적기업은 국민정부의 동의없이 세계 곳곳으로 상품, 서비스, 자본을 옮겨다닌다.

4. 초국적기업은 자체의 내부시장을 갖고 있다

내부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이 자신들이 정한 가격으로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것은 초국적기업이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기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초국적기업이 소유한 기업들이 전체로서의 초국적기업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무역의 30% 정도가 이러한 종류의 거래로 추정되며, 금액으로는 2조달러를 육박한다. 이 시장의 규모는 지난 십년간 두 배로 커졌다. 초국적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같은 물건의 가격이 나라마다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식으로 상품의 가격은 시장이 아닌 초국적기업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초국적기업은 자신들에게만 책임질 뿐 정부와 지역사회에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5. 초국적기업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

초국적기업은 유독성 쓰레기를 엄격한 환경규제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내버릴 수 있다.

6. 초국적기업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역사적으로 초국적기업은 정부를 지원하거나 정부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놀았다. 앞에서 언급한 대표적 초국적기업인 유니레버는 1930년대 히틀러의 나치와 협력했다. 이 밖에도 초국적기업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많다. 미국기업인 ITT는 1973년 칠레의 아옌데 정부를 전복시킨 피노체트가 이끈 군부 쿠데타에 개입했다. 피노체트 군사정권 시절, 몇몇 초국적기업들이 칠레에 대규모 투자를 했으며, 이 당시 칠레 정부는 칠레 기업들을 보호하는 경제법률들을 폐지하여 초국적자본의 투자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 결과 많은 칠레 기업들이 파산했다.

초국적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과 개인들은 정치인을 매수하여 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바꾸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환경규제, 노동권, 노조활동, 최저임금의 악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초국적기업 대응방안 찾아야

몇몇 초국적기업은 열악한 고용관계로 악명높다. 하지만 어떤 초국적기업들은 국내기업보다 더 좋은 임금과 근로조건

을 제공하기도 한다. 초국적기업에 노동 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국의 경우, IMF 관리체제 이후 초국적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국적의 기업들이 한국경제를 좌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인 현대, 삼성, 대우, LG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국적기업으로 간주되

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초국적기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중요하다. 앞으로 늘어날 한국 안의 초국적기업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외국에 진출한 한국의 초국적기업에 대해 한국의 노동 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한국노동운동 앞에 놓여 있다. ♦

이 장에서 배운 것

- 초국적기업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점점 키우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세계경제를 통합시키고 있으며, 세계적 차원에서 생산을 통제하고 있다.
- 제3세계에서 초국적기업의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IMF 관리체제 이후 초국적기업의 한국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에 더 긴밀히 통합되고 있다.
- 나라 안팎에서의 초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해 노동조합운동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